

# 큰 이변은 없었다...K리그1 한 자리만 바뀐다

### 승강PO 승리 강원·수원FC 잔류...최하위 수원삼성만 강등 김포FC·부산 승격 도전 실패...K리그2 우승 김천상무 승격

숨 막히게 전개됐던 K리그의 '생존싸움'이 끝났다. 강원FC와 수원FC가 '생존'에 성공했고, 김포FC와 부산아이파크의 승격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2024시즌 K리그는 한자리만 바뀐다.

2023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이 지난 9일 진행됐다. 6일 1차전에 이어 펼쳐진 '마지막 승부'에서 K리그1 10위 강원과 11위 수원FC가 나란히 승리를 거둬 잔류를 선언했다.

강원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인 김포를 상대로 2-1 승리를 만들었다.

K리그1 최종전에서 간신히 10위를 지키면서 다이렉트 강등을 피했던 강원은 1차전 무승부에 이어

2차전 승리로 잔류에 성공했다.

강원은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근 김포에 고전했지만 후반 5분 만에 나온 가브리엘의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김포가 후반 13분 조성권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후반 26분 루이스가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가 퇴장 카드를 받았다.

수적 우위를 점한 강원은 후반 30분 나온 가브리엘의 두 번째 골로 1-2차전 합계 2-1을 만들며 K리그1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K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김포는 2년 차에

승강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1부 무대를 타진했지만, 퇴장이라는 돌발 변수 속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수원FC는 극적인 역전극을 연출하면서 잔류를 이뤘다.

앞선 1차전에서 K리그2 2위 부산에 1-2로 패했던 수원FC는 연장승부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자가 됐다.

이날 선제골은 부산의 차지였다. 전반 15분 최준의 오른발로 선제골을 만든 부산은 후반 32분까지 수원FC를 막으면서 승격을 이루는 것 같았다.

하지만 후반 33분 공세를 이어가던 수원FC가 마침내 골을 만들어냈다.

김주엽이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김현에게 공을 내줬고, 김현의 오른발이 이내 골망을 흔들었다. 수원FC는 기세를 몰아 후반 40분 '주장' 이영재의 왼발로 두 번째 골을 넣었다.

1차전 합계 3-3 동점이 되면서 결국 승부는 연장으로 돌입했다.

수원FC는 연장 전반 5분과 11분 나온 이광혁과 정재용의 골로 홈관중을 열광시켰다.

연장 후반 9분, 부산의 선제골을 만들었던 최준이 김정환의 골을 도우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이 김정환의 골을 도우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3분 뒤 수원FC의 로페즈가 쐐기포를 날렸다.

2020년 K리그2 2위에 오른 뒤 승격PO를 통해 1부 무대를 밟은 수원FC는 올 시즌 '강등권'에서 위기의 가을을 보냈다. 수원삼성과 승점 33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득점에서 앞서 '다이렉트 강등'을 피한 수원FC는 승강플레이오프에서도 기적 같은 뒤집기쇼를 펼치면서 내년 시즌에도 1부리그에서 경쟁하게 됐다.

반면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던 부산은 승강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통탄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시즌 마지막 원정에서 전남드래곤즈에 0-3 대패를 기록했던 부산은 홈에서 열린 최종전에서 다잡은 우승을 김천상무에 내줬다. 김천상무에 승점 1점 차로 앞선 1위였던 부산은 충북청주와의 최종전 1-1 무승부로 승점 70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반면 김천상무가 서울이랜드전 1-0 승리로 승점 71을 만들면서 우승컵을 닦아냈다.

2020년 K리그1 최하위로 강등 운명을 맞았던 부산은 두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내년 시즌도 2부리그에서 맞게 됐다.

결국 내년 시즌 K리그에서는 '한자리'만 바뀐다.

K리그1 최하위인 수원삼성이 1995년 창단 이후 처음 2부리그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됐고, 김천상무는 2013·2015·2021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강등 뒤 1년 만에 승격'을 이루며 1부리그에서 뛰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9일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2023-2024 분데스리가 14라운드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운데)와 동료 선수들이 프랑크푸르트에게 4번째 골을 허용한 뒤 허탈한 표정으로 걷고 있다. /연합뉴스

## 너무 오래 쉬었나...김민재의 뮌헨 충격의 1-5 대패

### 2주만에 프랑크푸르트전 출전 리그 첫 패배 뮌헨 2위는 유지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풀타임에 소화했으나 소속팀인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은 5실점이나 하고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뮌헨은 9일(한국시간)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2023-2024 분데스리가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 1-5로 대패했다.

뮌헨은 이날 시즌 첫 패배(10승 2무 1패)를 당했지만 2위(승점 32)를 지켰다.

1위 레버쿠젠(승점 35)은 리그에서 유일하게 개막 이후 무패(11승 2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코펜하겐(덴마크)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A조 5차전에서 경기 출장 대신 휴식을 취했던 김민재는 리그 13라운드 경기가 뮌헨에 내린 폭설로 연기된 탓에 11월 25일 12라운드 쾰른전 이후 약 2주 만에 경기에 나섰다.

김민재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센터백 조합을 맡았지만 이날 무려 5실점으로 무너졌다.

전반 12분 프랑크푸르트의 오마르 마르무시가 크로스를 맞고 나온 공을 오른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해 뮌헨이 첫 실점했다.

전반 31분에는 김민재의 실수가 발미가 돼 두 번째 실점을 했다.

김민재는 왼쪽 측면에서 공을 몰고 들어오는 안스카르 크나우프의 공격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고, 패스를 받은 에릭 디나 에비메가 드리블로 페널티 지역 왼쪽까지 전진해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다.

이어 5분 뒤에는 후고 라르손이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슈팅으로 반대쪽 골대를 찔러 프랑크푸르트는 전반에만 세 골을 넣었다.

뮌헨은 전반 44분 레로이 자네가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호쾌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만회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에비메가 후반전이 시작된 후 4분이 막 지난 시점에 왼발로 멀티 골을 완성하고, 후반 15분에는 수비 라인을 순간적으로 허물고 문전으로 침투한 크나우프가 오른발로 득밀어 넣어 끝 전치에 가세하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뮌헨은 더는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했다.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김민재에게 평점 5.89를, 풋점은 5.3을 줬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2023 체육지도자 워크숍'

전문·생활체육지도자 120명 참석

광주시체육회가 최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 및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문·생활체육지도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3 체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및 스포츠 테이핑 교육과, 전문체육지도

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부상방지 및 재활에 필요한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광주시체육회 전담수회장은 "지도자들이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시 체육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스포츠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황인범 데뷔골...즈베즈다 3-1 승리 이끌어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이 세르비아 무대 데뷔 골을 넣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10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스타디온 라이코 미티지에서 열린 세르비아 프로축구 수페르리가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플라도스트 루카니를 3-1로 물리쳤다.

황인범은 4-2-3-1 포메이션의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후반 43분에는 원더골로 팀의 세 번째 골을 기

록하고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요반 미야토비치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왼쪽 페널티 지역으로 돌아들어 간 황인범은 강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황인범의 발을 떠난 공은 크로스에 맞은 뒤 골라인을 넘어 바운스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올림피아코스(그리스)를 떠나 올 시즌부터 즈베즈다에 합류한 황인범의 리그 데뷔 골이다. 즈베즈다는 14승 1무 2패로 승점 43을 쌓아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북한 역도 리숙, 여자 64kg급 용상 세계신기록

리숙(20·북한)이 역도 여자 64kg급 용상 세계신기록과 인상, 용상, 합계 세계주니어 신기록을 세우며 2023 국제역도연맹(IWF) 그랑프리 2차 대회 정상에 올랐다.

리숙은 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대회 여자 64kg급에서 인상 114kg, 용상 146kg, 합계 260kg을 들어 우승했다.

용상에서는 2019년 태국 파타야 세계선수권에서 덩웨이(30·중국)가 작성한 종전 세계기록 145kg을 1kg 넘어선 신기록을 세웠다.

리숙은 인상, 용상, 합계에서는 모두 세계주니어 기록을 바꿔냈다.

'북한 역도 영웅' 림정심(30)의 동생이자, 황재우 아시안게임 이 체급 금메달리스트 림은심(27)은 인상 113kg, 용상 141kg, 합계 254kg으로 2위를 했다.

남자 81kg급에서도 리정승(26·북한)이 합계 374kg(인상 165kg·용상 209kg)을 들어, 합계 362kg(인상 161kg·용상 201kg)의 리만 어린 압둘라(23·인도네시아)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울의 봄
2관	서울의 봄
3관	3일의 휴가
4관	서울의 봄, [위드키즈]극장판 우영탕탕 은하인전단: 진정한 용기!
5관	서울의 봄
6관	서울의 봄
9관	나폴레옹
7관 씨네마plex	싱글 인 서울, 교토에서 온 편지
8관 씨네마plex	프레디의 피자가게, 뉴클리어 나우, 매직 프린세스: 얼음 괴물과 사라진 열쇠의 비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3-12-01(금) ~ 2023-12-22(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 달빛동행 교류공연**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일시 : 2023-12-15(금) 19:30  
 2023-12-16(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

즐거움  
**문화산책**